

혐오의 수사학 혹은 철학*

나는 논문에 대해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양공주 (yanggongju)라는 단어에 이르자 엄마가 끼어들었다.

“오, 그건 나쁜 말이야.” 엄마가 눈을 피하며 말했다.

“그런 식으로 쓰여온 건 알지만, 내가 글쓰기를 통해 그 의미를 바꾸려고 해요. 그 단어가 더 이상 수치스러운 말이 아니었으면 해요. 그 여자, 나한테는 영웅이니까. (...) 나는 엄마가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그레이스 M. 조, 『전쟁 같은 맛』)

하병학**

1. 혐오 사회와 수사학
2. 수사학과 철학에서 감정 이해
3. 혐오란?
4. 혐오 발언
5. 마무리를 대신하며: 흑수사학에 대항하는 백수사학

■ 국문요약

이 연구는 혐오를 철학과 수사학 관점에서 다룬다. 혐오는 감정의 하나

* 이 연구는 반곡 선생의 유지에 힘입어 이루어졌음.

** 독립연구자. 전 가톨릭대학교 교수 speechact@catholic.ac.kr

이다, 철학은 전통적으로 감정을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피노자의 감정론에서 혐오는 논의되지 않는다. 혐오를 다루기 전, 감정의 특성을 복합성, 주관성, 사회문화성, 가치판단 및 감각과의 관계, 그리고 서사 관점에서 제시한다.

너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에서 주요한 쟁점을 논의한 후, 혐오의 특성을 감각과 관련성, 혐오 행위 및 구조, 증오와의 차이로 제시한다. 혐오는 혐오 발언에 의해 쉽게 확산된다. 혐오 발언에 의한 대표적 사건으로 나치들에 의한 홀로코스트를 제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의 혐오 발언 사례를 분석한다.

혐오 발언은 대중을 기만하는 흑수사학이다. 이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백수사학을 통해 그 기만성을 밝히는 것이다. 지성인을 육성하는 대학에서 백수사학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주제어 ● 혐오, 혐오 발언, 감정, 수사학, 차별

1. 혐오 사회와 수사학

정치혐오, 여혐, 극혐, 외국인 노동자 혐오, 동성애자 혐오... 오늘날 한 국사회에서 혐오현상은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2024년 봄, 군대에 갓 입대한 훈련병이 열차려를 받다가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해당 중대장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훈련과 열차려 방식의 혁신이 아니라 남성혐오, 여성혐오로 그 문제가 변질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처럼 혐오는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낳고 있지만, 하나의 학문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려운 복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혐오는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 법학, 언어학, 문학만 아니라 그 근원적인 의미와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철학, 특히 그 확산에 일조하는 혐오 발언과 관련된 수사학 관점에

서 융합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혐오에 대해 수사학적·철학적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고대부터 시작된 수사학은 인간사회를 만들고 함께 사는 데 요구되는 능력, 특히 언어능력과 관련된 학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서 인간의 정의인 ‘이성적·언어적 동물 Zoon logon echon’과 ‘사회적·정치적 동물 politikon Zoon’이 함께 언급되면서 긴밀한 관계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¹⁾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변증술과 정치학·윤리학이²⁾ 결합된 것이자 정치학의 한 부류라고 말한다(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1354a, 1356a). 이러한 실천학문들의 특징은 필연적 진리, 그러함을 보장하는 논리학·수학과 달리 통념에서 출발하여 실제 삶과 직결된 개연적인 진리, 그럼직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이다. 여러 정치체제 중 군주정, 참주정, 과두정에 비해 민주정에서는 수사학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동체 내 일부 부류만이 결정권을 가졌던 다른 정치체제와 달리, 민주정에서는 동등한 권한을 지닌 시민들이 함께 더 좋은 공적인 의사결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설득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한마디로 ‘설득의 기예 thechne’, 설득의 원리와 요소에 대한 실천학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설득이란 넓은 의미로서, 한갓 언어능력을 넘어, 옳고 그름, 더 좋고 덜 좋음 등에 대한 판단력, 상황 파악, 그리고 집단 지성을 형성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의견 전개, 논증행위 능력, 감정 이해, 성품 등을 요소로 한다. 이러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고전 수사학은 민주정에서 모두가 학습하고 갖추어야 할 시민의 기본능력으로 인정되었다.³⁾

1) 인간공동체는 가족, 촌락 공동체처럼 다양한데,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도시국가 polis는 최고의 완성된 공동체 형태이며 다른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정체 politeia(정치 제도, 법 등만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식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회’와도 관련된다)를 담고 있으며, 정치학은 바로 이에 관한 실천학문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정치학과 윤리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유는 윤리학이 개인의 행복, 덕과 관련되는 반면, 정치학은 공동체의 행복, 덕과 관련되는데, 전자와 후자는 목적론적으로 서로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다.

3) 전문적인 능력 습득을 목표로 하는 교과목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

설득이 가능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화자는 기본적으로 논거발견술*inventio*, 배열술*dispositio*, 표현*elocutio*, 암기*memoria*, 행위*actio* 등의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 중에서 혐오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논거발견술, 즉 설득의 수단으로서 사안과 관련된 논증 및 말*logos*, 청중과 관련된 감정*pathos*, 화자와 관련된 성품*ethos*이다. 특히 혐오는 감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청중의 파토스와 직결되며, 또한 혐오 발언과 관련하여 그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수사학과 철학에서 감정 이해

고대철학에서 감정*pathos*은 포괄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깊이 있는, 체계적인 논의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 특히 플라톤에 있어서 감정은 인간이 완전히 벗어날 수 없지만 이성을 통해 제어되어야 대상이다. 이와 같은 감정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근대철학에 이르기까지 몇몇 철학자를 제외하고 지배적인 경향이었다.⁴⁾ 철학에서 감정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 첫 번째 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논의되는 저작이 <영혼론> 등이 아니라 『수사학』이라는 점이다. 그는 설득과 관련된 수사학에서 감정을 다루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감정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과 관련하여 의견을 바꾸게 하는 모든 느낌이며, 괴로움과 즐거움이 수반된다(아리스토텔레스 2017, 1378a 21~22).” 즉 그가 수사학에서 감정을 다루는 이유는, 예컨대 분노하는 사람의 심적 상태, 분노 대상자, 분노의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를 설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 저작에서 제시된 감정은 분노, 우애, 증오, 두려움, 안도감, 수치심, 파렴치, 호의, 동정심, 의분, 시기심, 명예심, 경멸 등이다.⁵⁾ 여기에서 혐오감은 언급되지

을 갖추는 데 필요한 일반 교과로서 중세 대학의 ‘7개 자유교과*septem artes liberales*’에 수사학이 속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4) 예외적인 학자로 고대에 에피쿠로스, 근대에 D. 흄, A. 스미스 등을 들 수 있다.

않는다. 다만 혐오감과 가까운 감정으로 보이는 것은 경멸과 적개심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 논의하겠다.

다양한 감정에 대해 상세하게 논의를 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는 B. 스피노자이다. 그가 『에티카』에서 논의하는 감정·정서는 정신과 관련된 것들이며, 정신과 무관한 신체의 외적 감정들, 예컨대 전율, 흐느낌 등은 다루지 않는다. 그가 윤리학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에티카』에서 감정·정서를 논의하는 이유는 자기 존재 유지에 대한 욕구(cupiditas)가 인간의 본질이며, 이것을 배제하는 관념은 인간의 정신과 반대된다고(스피노자 2004, 142[정리 10])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욕구 및 기타 감정·정서가 정신과 관계할 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에티카』에서 논의되는 감정·정서는 욕망/기쁨/슬픔/경멸/미움/싫음/조롱/멸시/잔악함 등 대략 45개인데,⁵⁾ 여기에서도 혐오는 직접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이 연구의 목적이 모든 철학자들의 감정론에 대해 세세히 논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한계 내에서는 고대와 근대의 철학에서 혐오는 중요한 논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에 있어서 적개심은 우애의 반대, 즉 적에 대한 감정이고, 경멸은 상대를 낮추어 보거나 존중할 필요가 없게 느끼는 감정(달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 피해야 할 역겨운 감정의 뜻을 내포하지 않는다. 거의 같은 의미인 스피노자의 멸시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것”(스피노자 2004, 194[정리 23])인데, 그 반대가 과대평가인 만큼 혐오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혐오를 중요한 감정으로 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첫째,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중시한 감정은 주로 인

5) 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2권 2장~11장까지 서술된 감정들에 대한 논자의 정리를 참조하라(하병학, 강미영 2017, 135~136).

6) 스피노자가 정의와 정리를 제시한 감정 45개는 다음과 같다: 욕망/기쁨/슬픔/경탄/경멸/미움/경향/싫음/조롱/희망/공포/신뢰/절망/환희/회한/연민/호의/분노/과대평가/멸시/질투/동정/자기만족/겸손/후회/오만/소심함/명예/치욕/동경/경쟁심/감사/자비심/분노/복수심/잔악함/두려움/대담함/불안함/당황/온건함/명예욕/미식욕/탐욕/욕정.

간관계와 관련된 것인데, 혐오는 그 대상이 오물 등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되지 않았다는 추측이다. 스피노자에게서 혐오는 감각기관의 작동에 따른 신체적 반응, 느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중요한 감정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차별적인 노예제도, 계급제도로 인해 일부 계층의 사람은 평등하게 대해야 할 자격이 없는 차별·냉대·소모 대상이었을 뿐, 혐오 대상은 아니었고, 따라서 혐오가 일반 인간사회에서 중요한 감정으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추측이다. 셋째, 하층 계층에 대한 혐오가 종종 자행되었을지라도 철학적 논의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 통용되는 감정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추측이다. 논자는 개인적으로, 혐오는 시민 혁명, 산업 혁명이 일어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신분제 폐지 등을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 인권이 불가침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아닌가 추측한다.

혐오에 대해 논하기 전, 감정의 특성을 살펴보자.

1) 감정의 복합성: 인간의 감정들은 피아노 건반의 음이 하나씩 구별되는 것과 달리 서로 명료하게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바이올린 현을 한꺼번에 치는 것처럼 복합적이며 서로 분리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감정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영화 ‘파묘’에서 무당 화림의 대살굿을 보고 무서움, 섬찝함, 기괴함, 신비함, 비장함, 잔혹함, 전율 등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은 채 한꺼번에 느껴질 수 있다. 또한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실망감, 모멸감을 느끼고 상대에게 분노가 치미는 것처럼 어떤 감정이 다른 감정의 원인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심리학에서 적대감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적 태도이며, 이것이 자극받을 때 분노라는 감정을 표출한다고 보는데(레이저스/레이저스 2013, 34), 이러한 구별도 확정적이지 않다.

2) 감정과 감각: 감정들 중에는 인간 일반에게, 심지어 동물에서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원초적인 감정, 특히 신체와 관련되어 본능에 가까운, 예컨대 분노, 기쁨, 슬픔, 놀람, 사랑 등의 감정이 있다.⁷⁾ 반면 동물에게서

7) P. 에크만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감정으로 기쁨, 슬픔, 경멸, 공포, 분노, 놀람, 혐오를 제시한다.

는 발견하기 힘든, 인간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사회발전에 따라 관심도가 변하는 죄책감, 수치심, 우울감, 모멸감, 너그러움, 자존감, 명예심, 배려심, 인권 감수성 등도 있다. 혐오는 신체적·생리학적 측면에서는 전자와 관련되지만, 정신적·사회적 측면에서는 후자와 관련된다.

3) 감정(표현)의 주관성: 감정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 위의 예시 무당화림의 대살곳에서 개인마다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고, 푸줏간에 걸린 고기를 보고 누구는 식욕, 신선함, 가성비를, 누구는 끔찍함,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용어는 사물을 지칭하는 용어들과 달리 그 의미가 명료하지 않다.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 방식도 일종의 사적 언어private language처럼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어떤 감정 표현을 듣고 떠올리는 느낌, 표상, 뉘앙스도 다를 수 있다. 혐오라는 용어에서 역겨움, 다가오는 것이 싫음, 거부와 기피, 구역질 남, 불결함 등만 아니라 불안감, 비하, 지긋지긋함, 수치심, 인간 말종 등 개인마다 다양한 단어가 떠오르는 것도 이해 맥락만 아니라 단어에 대한 개인적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이다.

4) 감정(표현)의 사회문화성: 감정의 표현은 시대·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 한 공동체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정의 표현은 변하고, 한 표현의 의미도 변할 수 있으며, 새로운 표현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한다. 한국어에서 부끄러움이라는 용어는 낮 뜨거움, 수치심, 망신스러움, 쑥스러움, 수줍음, 소심함, 설렘 등 다른 언어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동정심(同情心)은 국어사전에서도 한국인의 일반적인 이해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김’을 뜻한다. 그런데 한자는 마음이 같음, 같은 정서의 마음을 뜻하니, 이는 공감, 영어의 sympathy와 가깝다는 점에서 표현과 이해가 불일치한다. 독일어 단어 ‘schadenfreude’는 ‘타인이 피해를 입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뜻하는데, 한국어로는 한 단어로 번역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감정 표현에는 문화적 차이가 반영될 수 있다. 또한 감정은 이성보다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기 쉽다는 점에서 사회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군중심리는 이성보다 감정과 관련성이 더 많다. 또한 집단지성도 감정의 도움 없이 쉽게 형성되지 않을 것 같다.

5) 감정과 가치판단: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모든 감정에는 쾌 또는 불쾌가 수반하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감정은 쾌 또는 불쾌로 분류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감정은, 특히 불쾌를 수반하는 감정은 나쁜 것이고, 따라서 증오심이나 경멸을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렇지 않다. 홀로코스트 현장에서 유대인은 나치에게 증오심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며, 일제 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나갔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역사를 왜곡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경멸심은 필요한 감정이다. 또한 불쾌를 수반하는 분노·분개는 A. 스미스에 따르면 정의를 지키는 보호장치이다(하병학 2015, 78-82). 흔히 후회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감정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쓸데없는 감정으로 치부하지만,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한 미래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감정이기도 하다.⁸⁾

6) 감정과 서사: 위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감정에 대해 사물을 지칭하듯 객관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저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독자가 달리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 화자, 대상자, 청자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감정이 주목될 수도 있고, 그들 중 누구에게 감정이입이 쉽게 되느냐에 따라 저자에게 동의하기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감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상황과 인물들의 태도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사건, 이야기, 소설, 특히 표정까지 느낄 수 있는 영화 등을 예시로 제시하는 것이 논의 전개에 큰 도움이 된다.

3. 혐오란?

앞에서 언급하였듯, 어떤 감정 자체에 대해 좋고, 나쁨이라는 가치판단

8) M. 셸러는 후회의 긍정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후회는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영혼의 자기치유의 형식이며, 나아가 영혼이 잃어버린 힘을 다시 얻는 유일한 길이다(하병학 2020, 175).”

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유의미한 논의를 위해 혐오는 본능에 가까울 정도로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라거나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나쁜 감정이라는 선판단을 내려놓고 혐오를 살펴보자.

혐오와 관련하여 논자에게 가장 어렵고도 근본적인 물음은 혐오의 정의이다. 즉 어떤 행위가 혐오 행위이고, 그것이 왜곡, 폄하, 비하, 폄훼, 차별, 증오(미워함), 거부감(싫음) 등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러한 구별의 어려움은 영어, 독일어 등 다른 언어들에서도 발견된다.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인종, 여성, 동성애자, 장애인에 대한 혐오 사례, 혐오가 가득 찬 악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이러한 확실한 사례만으로 오늘날 발생하는 다양한 혐오 현상과 이해를 충분하게 설명하기 힘들다.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사실과 관련된 왜곡, 가치평가와 관련된 폄하이다. 이것들은 사실 기술 및 가치평가에 있어서 그 근거의 참,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다른 것들은 사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객관적 사실의 문제를 넘어선다. 논자의 핵심 물음은 -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 혐오가 차별 및 싫음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차별과 싫음은 혐오에 바탕을 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예컨대 직장에서의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갑질, 그리고 대학에서 정년전임교수 대비 비정년전임교수에 대한 차별이 혐오에 근거하지는 않는다. 또한 차별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행위이다.⁹⁾ 그래서 어떤 차별에서 혐오가 주된 역할을 하는지, 차별이 부당하다면 그것을 비판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왜 혐오를 더 논의해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싫음은 증오, 멸시, 질

9) 어떤 행위가 차별행위인지, 혐오행위인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한 연구용역보고서가 구분없이 “혐오차별”로 실태조사를 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추측된다(국가인권위원회,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2020). 이 보고서 III. 트랜스젠더가 경험하는 혐오와 차별에서 제시한 7개 중 5개는 차별로, 1개는 혐오표현으로, 1개는 혐오차별로 설명하였다(19-20). -마지막 경우도 차별로 파악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혐오차별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하는데, 다만 그 서술을 보면 제도적인 불이익은 차별에, 개인적인 괴롭힘 등은 혐오에 더 가까운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차별과 혐오의 개념 정의와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였더라면 보고서의 학술적 가치가 더 높아졌을 것이라 생각한다.

투 등을 포함하므로 혐오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교통질서를 중시하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한심하게 생각하며 싫어함, 또는 ‘한심한 놈’ 등의 욕을 하는 것에도 혐오감이 들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넘친다는 것이 논자의 소견이다.

다음은 혐오의 대상과 허용범위에 대한 물음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는 언제나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어떤 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혐오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8세 여아에 대한 성폭행을 하여 우리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하고 안산에 거주지를 마련하자 지역 주민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입주를 막아선 적이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반응에는 혐오가 담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람에 대한 혐오는 언제나 부당하다는 주장은 어린 자식을 둔 부모들의 현실적인 불안감을 무시하는 이상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할 수 있다. 또한 어떤 행위는 결국 그 행위자의 인격, 의도, 목적과 관련되며 행위 책임도 수반된다고 생각하면 행위와 행위자를 무자르듯 나누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판이 가능하다. 한편 어느 집단, 예컨대 인종, 성, 민족, 출신지, 동성애, 장애 등에 대한 혐오는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혐오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집단차별의 근원이 되며,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개인적 노력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혐오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떤 혐오적인 행위를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혐오의 특성에 다가가 보자. 2009년 교도소에서 돌발행위를 막기 위해 재소자들의 개방형 화장실이 인격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 이유가 용변을 볼 때 타인의 시선에 따른 수치심 유발도 가능했겠지만, 이 경우 소송을 한 재소자가 제시한 이유는 역겨운 냄새와 소리에 시달린다는 점, 즉 혐오였다. 혐오가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지 않는 사례이다. 2024년 3월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000m, 1,500m에서 1, 2위를 다투던 한국 선수 2명이 계속 충돌하여 탈락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한 신문사는 “한국은 이번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자멸한 호구였고 명칭한 기쁨조였다(<스포츠경향>, 2024. 03. 23.).”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여기에서 혐오가 발견되는가, 아니면 다만 비하와 조롱만 발견되는가. 2018년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입국했을 때 그들의 난민 승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국민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세워 이에 대한 이성적 논의나 인도주의의 당위성까지 잠식한 사건이 있었다. 반대자들의 태도에는 분명 차별과 편견 그리고 막연한 거부가 들어 있지만, 이 구호가 혐오적 발언인지 확정하기 쉽지 않다. 2022년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전) 대통령이 신영복 사상가를 존경한다면 확실히 김일성주의자다(<서울경제>, 2022. 10. 12.).”라고 말해 논란이 되었다. 이 말이 인격 모독, 명예 훼손임은 분명하지만, 혐오 발언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¹⁰⁾

혐오와 관련된 핵심 문제는 타인에 대한 혐오의 정당성 여부이다. 혐오를 다루는 저작들 중 주목할 만한 것이면서도 난해한 것은 M. 너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이다. 이 저작에서 핵심 물음은 혐오와 수치심이 법의 제정과 집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것이다(15). 그(녀)는 먼저 일부 보수적인 혐오 지지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즉 그들에 따르면, 혐오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감정이요, 형법 등에서 “잔인함을 인식하고 이를 비난하는 데 있어 본질적(142)”이며, 따라서 사회가 지속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법·도덕·가치를 뒷받침하

10) 혐오를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이용한 경우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나치의 혐오 정책이다. 그런데 홀로코스트에 앞서 실행한 독일인들을 대상으로 한 학살에도 나치는 혐오 정책을 활용하였다. 나치는 독일인들 중 정신질환자, 유전질환자, 동성애자, 선천적 장애자, 강력범죄자 등을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이자 자손 번식을 막아야 한다고 선전했다. 독일인들은 정기적으로 이들의 수용시설을 방문할 의무가 있었고, 교사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들먹이며 부정적 가치를 지닌 생명의 제거가 타당함을 교육해야 했다. 이른바 T4 작전으로 나치정권은 1939년부터 41년까지 독일 국민 약 30만 명을 가스로 죽였다. 불필요한 자를 제거함에는 분명 혐오가 내재되어 있고 그에 대한 교육과 계몽도 혐오감을 국민들에게 심어 제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는 원동력이자 좋고 나쁨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N. 호손의 소설 <주홍글씨>에서 간통한 여성에게 A라는 글씨를 가슴에 새기는 처벌을 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간통죄의 예방효과를 가중한 것이 그 사례이다. 조선시대에 일정 기간 시행되었던 얼굴, 이마 등에 죄목을 나타내는 문신을 새기는 묵형(墨刑), 정형(黥刑), 자자형(刺字刑) 등의 형벌이 시행된 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벌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현재를 고려하면, 이런 방식의 혐오가 법의 영역에서 좋은 지침이 아님은 분명하다. 따라서 혐오는 어떤 영역에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은 더욱 긴요해진다.

너스바움은 혐오를 바탕으로 하는 법적 처벌의 정당성, 혐오의 허용 범위, 궁극적으로 인권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논한다. 그의 궁극적인 주장을 선제적으로 소개하면, 수치심, 혐오가 법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감정은 지배적인 집단이 다른 집단을 예측시키고 낙인찍는 사회적 양식과 연결(603)”되어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모든 수치심, 혐오가 다 그러하지는 않고, 나름 긍정적인 것도 있다고 열어 놓으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논의하지 않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¹¹⁾ 너스바움은 자신의 궁극적인 주장이 타당함으로 입증하기 위해 혐오와 관련된 여러 주장과 논쟁거리를 J. 밀의 위해 원칙(harm principle, 즉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개인적 행위를 규제하는 법은 부당하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따져나간다. 하지만 그의 논증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하나의 그러한 경우가 발견된다고 모두 그러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오류이듯, 사회과학에서 그러하지 않은 반례를 제시한다고 그러하다는 주장의 부당함이 입증되는 것은 아닌데, 그

11) 논자는 한 논문에서 수치심에서 구별되는 3개 유형을 제시하면서, 유형1이 혐오와 유사하며, 너스바움이 말하는 수치심은 유형2와 유형3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하병학 2019a, 194~197). 또한 다른 논문에서 R. 베네딕트가 『국화와 칼』에서 동양은 수치 문화로, 서양은 죄의식 문화로 특징짓는 것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지만, 그 해석은 논자와 정반대라는 점을 지적하며, 베네딕트가 동양문화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하병학 2019b, 237).

의 논증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너스바움이 다루는 논쟁들 중 중요하게 보이는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는 동물 배설물, 시체 등 원초적 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각에 기초한 것으로서 진화적 유산이라는 주장에 대한 검토이다. 이러한 대상에 의한 감염을 피하는 의미의 혐오에 대해서는 너스바움도 동의한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 의미의 혐오가 사회적 의미로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정당성을 의심하며, 특히 법 제정에 있어서 혐오를 근거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혐오가 위험을 경고하는 신체적 반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균한 바퀴벌레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갖는 사례를 제시하며 혐오는 감각적이라기보다는 관념적이며, 학습에 의해 발생한다고 비판한다.

둘째, 혐오는 비정상에 대한 반응이며, 혐오 없이는 잔인함에 대응할 수 없고, 사회적 가치를 보호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이다. 하지만 돌고래가 일반 포유류와는 달라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혐오를 느끼지 않으며,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인권침해임을 지적하고, 동성애는 잔인함과 무관하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으로 규제하는 것들에는 혐오가 기초가 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완벽한 반론이 쉽지 않다. 카스가 제시한 아버지와 딸 사이의 근친상간, 동물과의 수간, 시신 절단, 인육 풍습, 강간, 살인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154). 이 중 강간과 살인은 밀의 원칙을 벗어나므로 논란거리가 아니다. 근친상간 불법화를 주장하려면 친족 사이에는 혐오보다 친근감이 강하기 때문에 혐오보다 유전적 건강 문제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때 혐오의 주체와 객체의 다양성, 즉 제1자와 제2자 사이의 혐오를 말하는가, 제3자가 느끼는 혐오를 말하는가 하는 관점의 차이는 언급되지 않는다. 수간에 대해서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통증을 근거로 삼아 - 통증 외 모욕도 근거로 삼았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 - 밀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한다. - 과연 동물에 대해서도 밀의 위해 원칙이 적용될지 의문이다. - 인육 풍습은 시신 절단을 포함하므로 결국 시신 절단이 밀의 원칙을 넘어서는 유일한 사례

이지만 그렇다고 혐오의 필요성이 논증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그런데 시신 절단, 인육 풍습을 법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혐오의 기본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떤 반론이 가능할까. 티베트의 조장은 시신 절단을 포함한다. 따라서 조장은 시신 절단을 불법화 하는 근거로 혐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례가 된다. 조장 문화가 단지 문화적 차이에 불과하다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천장사(똥텐)들의 시신 분해 현장을 직접 목도하면 즉각적 감각에 의해 발생하는 혐오감을 이성으로 제어하기 힘들다. 이때 문화적 차이로 인해 신체적 반응으로 발생하는 혐오감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비난할 수 있는 것은 그 혐오감을 발산하는 폭력적인 태도와 행위, 자문화우월주의적인 표현 등이고,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학습된 습관인 혐오를 인간의 보편적 감정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셋째, 규제가 없으며 알콜·약물 중독, 동성애 등이 사회에 만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적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검토이다. 너스바움은 이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전염, 확산의 확실성에 대해서는 의심한다. 한편 이러한 개인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에 혐오가 필수적인지는 의문이다.¹²⁾ 동성애의 만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동성애가 비정상적이라는 전제와 대다수의 사람이 동성애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부당하다고 지적할 수 있다.

혐오에 대한 논자의 소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혐오는 마치 통증처럼 원초적으로 신체와 결부되어 자신을 보호하는 감각과 직결된 감정이다. 동물 사체, 배설물, 오물, 오염물 등으로부터 감염을 막기 위해 후각, 미각, 촉각, 시각이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불쾌한 느낌이 혐오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특성으로 인해 혐오는 정신적인 인식과 관념에도 손쉽게 스며들어 사회적으로 확산되기 쉽고, 또한 그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심이 덜 가게 된다.

12) “죽음운전은 살인운전입니다”, “죽면죽음” 등 공익을 위해 혐오를 자극하는 광고문이 적절한 수단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금연광고에서 “폐암 하나 주세요”와 같은 문구만 아니라 심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사진, 동영상상을 활용하는 것은 제한 없이 허용되는가 하는 물음은 더욱 그러하다.

2) 싫음·미워함과 달리, 혐오는 불결함, 불쾌함, 그리고 가까이 다가옴으로써 발생하는 감염 가능성으로 인한 감각적인 반응, 예컨대 혐오스러운 자에 대해 구역질 나기, 토하기, 얼굴 찡그리기, 눈 가리고 코 막기, 손가락질하기, 욕하기, 침 뱉기, 돌맹이 던지기, 발로 차기 등 공격적인 행위와 직결되는 것 같다. 그래서 혐오는 대상자에게 원인이 있다는 생각을 쉽게 갖게 하는 동시에 혐오 표현, 행위가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위험성을 지닌다.

3) 구조적으로 보면, 발언자가 혐오 발언을 하면 당사자는 모욕감, 수치심을 느끼고 제3자는 혐오를 느껴 혐오가 사회적으로 확산된다. 혐오 발언이 넘치거나 근거가 미약하면 오히려 발언자에 대해 혐오감이 발생하기도 한다.¹³⁾ 혐오(표현)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대상으로 강자, 다수자들 의해 발생한다. 한편 국내에서 선거철이 되면 정당들이 득표를 목적으로 서로를 혐오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거대양당제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이다.

4) 증오·적개심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상대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감정, 적에 대한 감정이다. 그렇다면 증오가 혐오보다 더 위험한 감정이다. 상대적으로 증오는 외부 세력, 적에 대한 감정인 반면, 혐오는 내부의 특정 집단에 대한 반감이다. 혐오는 한 집단에 대한 차별이 정당하다는 것을 내부 구성원들에게 설득하기 위해 주로 활용되는 것 같다. 일부 집단에 대해 증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차별을 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 이때 구성원들에게 증오와 차별이 정당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혐오감을 갖게 하여 이것을 근거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에서 일부 구성원에 대한 차별과 증오가 발생하는 데 혐오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혐오가 정당한지 검토하는 일이다.

13) A. 스미스가 어떤 감정 자체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자기 제어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일맥상통한다. “[한도를 넘어선 분노는]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는 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분노의 대상이 된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든다(스미스 2014, 456).”

4. 혐오 발언

혐오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은 관습, 제도, 교육 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손쉬운 것은 언어이다. 혐오를 정치에 활용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례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나치들에 의한 홀로코스트이다. 홀로코스트는 많은 학자들의 심도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기독교인이 대부분인 유럽 사회에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명의 무고한 일반인을 학살하는 데 동참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십계명 중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를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홀로코스트가 발생한 여러 원인들이 제시되는데, 그 중 하나가 나치 언어Nazisprache, 나치가 사용한 유대인에 대한 혐오 발언이다.

나치, 특히 히틀러와 괴벨스는 선동적인 말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들의 레토릭은 많은 독일인들이 나치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용하기 힘든 일을 거부감 없도록 순화하고 그 뜻을 자의적으로, 모호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표현 ‘최종해결 Endlösung = 유대인을 이 세계에서 모조리 없애는 일, 절멸’, ‘소개Aussiedlung, 재정착Umsiedlung = 사형을 위한 이송’, ‘특별취급Sonderbehandlung = 사형’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했다. 히틀러는 1922년 『나의 전쟁』에서 유대인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유대인은 전형적인 기생충, 기생 생물이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유리한 배양지만이 그것을 불러들이는 해로운 세균처럼 언제나 더 번성되고 있다. 유대인의 존재가 낳는 결과는 기생충의 결과와 같다. 유대인이 나타나 는 곳에서 숙주 민족은 조만간 사멸하고 만다(Hitler 1930, 334).”¹⁴⁾

14) J. 괴벨스도 흡사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이 참혹한 대재앙(스페인 내전)을 사주하고 선동했으며, 그로부터 이익을 본 사람으로 유대인을 지목하고자 합니다. ... 이들은 세계의 적이요, 문화의 파괴자이며, 인류의 기생충이고, 혼돈의 자식이며, 악마의 화신이고, 부패의 효소이자, 인류를 멸망시킬 탈을 쓴 악마입니다(재인용: 위스트리치

나치는 유대인들을 ‘부패성 곰팡이faulender Schimmel’, ‘독성 있는 종양 giftige Geschwüre’, ‘인류의 영원한 박테리아ewiger Spaltpilz der Menschheit’, ‘인류의 결핵균Tuberkul’, ‘인류의 변종Abart’, ‘흡혈귀Blutsauger’ 등으로 표현하였다. 불결한 해충, 감염성 세균,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 수 없는 종속영양생물 등의 생물학, 의학, 보건학 용어를 빌린 은유를 활용함으로써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정책이 과학에 기반하는 것이라고 믿게끔 하였다. 그리하여 유대인 절멸을 ‘위생처리업무Reinlichkeitsangelegenheit’라고 하였다. 나치는 독일의 ‘건강한 국민 신체gesunder Volkerskörper’를 지키는 길, 아리안족의 구원Erlösung의 길이 바로 유대인의 절멸Endlösung이라는 점을 세뇌하여 독일인들의 적극적인 동참, 적어도 묵시적 동의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요컨대 누구에게나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신체적 혐오를 근거로 독일 국민의 사회적 혐오를 부추겨 그들의 정신적 관념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나치의 유대인 혐오 발언이 홀로코스트의 유일한 요인은 아니겠지만, 혐오 발언이 얼마나 반인륜적·반사회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인식하기에는 충분하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중 청중의 감정pathos만을 자극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던 것으로, 로고스와 에토스의 결여 및 청중들의 무비판적 수용이 지닌 위험성을 잘 보여준다. 청중의 감정을 흔들어 설득하고자 할 때 효과적인 전략은 시각화, 청각화, 후각화 하는 표현을 통해 청중이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육감적인 느낌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감각과 관련이 깊은 혐오 발언은 다른 감정들보다 더 위험한 파급효과를 낳기 쉽다.

다음은 최근 국내에서 접한 대표적인 혐오 발언이다.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 차명진 전 의원은 “자식의 죽음에 대해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찜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는 글을 올리고, 그리고 이에 대해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세월호 그만 우려먹어라 하세요 (...) 이제 징글징글하다”라고 맞장구를 쳤다(<부산일보>

2019. 04. 16.). 이는 아이들의 죽음, 수장, 음식을 묶어 역겨운 연상을 만들어 내는 악질적인 혐오 발언이다. 화자들은 자신의 발언으로 유족들에 대해 시민들의 혐오감을 부추기려 했지만, 지나친 나머지 오히려 발언자들에 대해 의식 있는 시민들의 혐오감을 낳았다.

그런데 혐오가 신체적인 감각과 감염 위험성에 국한한다고 보는 것은 너무 제한적이다. 신체에 대한 감염을 사고에 적용하면, 관념적 물듦, 닳아 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신체적 혐오도 학습에 의해 안착되는 것처럼 관념적·사회적 혐오는 관습에 의해 고착된다. 일부 집단에 대해 모욕적인 말 중에 혐오 발언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다. 선거철만 되면 국민들이 흔히 듣는 것이 “개”, “쓰레기”, “파렴치 잡범”, “망나니”, “친일파” 등 상대방에 대한 비하, 증오·혐오 유발 발언이다. “윤 대통령·한동훈 ‘종북세력 응징’... 이재명 ‘머슴 도둑질’(<중앙일보>, 03. 24.)”라는 기사를 살펴보자. “그[이] 재명은 ‘회칼로 봤지, 농담이야’라더니 ‘광주에서 온 사람들 잘 들어. 너희 옛날에 대검으로, M-16으로 총 쏘고 죽이는 거 봤지. 너 몽둥이로 뒤통수 때려 대가리 깨진 거 봤지. 조심해, 농담이야, 농담이야’라고 말했다. 그러곤 ‘여러분 이게 농담입니까. 생선회칼로 기자 허벅지를 찢어내는 것이 농담입니까. 겁박한 것 아닙니까’라고 했다.” 이 발언은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만 아니라 청중에게 그 잔인성을 떠오르게 하는 혐오 발언이다. 한편 제목은 유권자들에게 상대방에 대해 증오심을 일으키려는 발언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제목에서 “종북세력”은 동족간의 6.25전쟁을 겪은 국민에게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는 아류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고 가까이 가면 물들 수 있음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혐오 발언이라는 것이 논자의 소견이다.¹⁵⁾

15) 초등학교 시절, 논자는 반공 미술 시간이면 본 적도, 뜻도 알 수 없었던 ‘북괴’를 웅당 ‘뿔 달린 도깨비’, ‘어린이를 잡아먹는 붉은 악귀’, ‘총칼을 든 살인마’, ‘그림자처럼 다가오는 간첩’ 등으로 나타내고 “무찌르자 공산당!”, “말 많으면 공산당!” 등의 포스터를 그리고는 하였다. 그리고 포상을 받은 학우가 무섭게 그린 그림을 보고 느낀 두려운 전율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지금 생각하면 반공의식을 세뇌하기 위한 관념의 신체화·감각화 과정이었던 것 같다.

국내의 혐오 발언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기관 중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인권위는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혐오표현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혐오 표현 개념의 세 가지 요소로 “① 어떤 속성을 가진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함 ②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대상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거나 그에 대한 차별, 폭력을 선전 선동함 ③ 대상 집단에 대한 물리적 공격이 아닌 언어 등을 사용한 언동(5)”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혐오 표현을 92개를 선별하였다. 그중 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혐오 표현이라고 동의하는 사례>

- 1) “선을 보고 오는 여자가 집없는 남자한테 결혼을 오려고 합니까?(42)” [비하 및 혐오]
- 2) “군복무중인 자녀를 동성애(항문성교)로부터 보호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유지(43)” [적나라한 혐오 표현]
- 3) “에이즈와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해보니 에이즈 환자가 1년에 1,100명이고 청소년이 대다수이고 60%가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에이즈가 많이 나타나고 미래세대가 죽는 것은 나라의 재앙이다(43~44).” [거짓. 감염의 위험성을 활용하는 혐오 발언]

<혐오 표현이라고 동의하기 어려운 사례>

- 1) “지난 번 일에 대해서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40)” [일반적 표현]
- 2) “장애인들은 다양합니다. 1급, 2급, 3급...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40).” [자연현상 또는 의견 표명. 맥락에 따라 오히려 장애인 혐오를 부정하는 말로 해석 가능]
- 3) “사리사욕에 눈먼 정치인들이 우습게 만들어버린 누더기 선거법(40)” [일반적 은유]
- 4) “정부의 성인지 예산을 출산장려금으로 바꾸고, 낙태를 규제하고 생명 존

중 사상을 강화해야 합니다(41).” [의견 표명]

- 5) “우리 여성이 차별받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아들하고 딸하고 차별하고 키 우십니까?(41)” [사용이 아니라 언급]
- 6) “군복무가산점제부활(42)”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의견 표명]
- 7) “동성애 합법화 반대(43)” [의견 표명]
- 8) “청년일자리 막는 민노총 전교조 해체(45)” [기만적일 뿐, 혐오라고 보기 힘들]
- 9) “5.18 유공자 명단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48)”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의견 표명]
- 10) “힘없고 뺨없는 다문화 가정도 적극 대변하겠습니다” [만일 상당수 다문화 가정이 소외 계층에 속하는 것이 사실일 경우, 그들을, 혹은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변하겠다고 말하면서 “힘없고 뺨없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혐오인가?]

논자는 차별과 혐오를 줄이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 보고서가 “혐오 표현에 대한 지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선거라는 가장 큰 정치활동 안에서 인권존중이라는 기본원칙을 함께 지켜나가기 (4)”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도 이해한다. 하지만 과연 위의 사례들이 모두 혐오 발언인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확정하는 것이 정당하고도 바람직한지, 이 보고서 수행기관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해당 주제에 대해 전문성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예컨대 1차 모니터링에서 혐오 표현으로 지적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문재인 주사와 바이러스 퇴치 (28)”를 삭제한 것은 이 보고서가 가진 한계를 보여준다. 이 문구는 국민들에게 좌우의 이념 갈등을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혐오 발언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 중 법조인이 너무 과다하여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도 지적하는 문제점이다(<한겨레>, 2024. 03. 28.).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 하나, 또는 어떤 기관이 혐오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무리하고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최근 <민족의 장

군 홍범도>의 저자 이동순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작시 “홍범도 장군의 절규”를 올렸는데, 페이스북이 이 시가 혐오 발언에 해당한다며 삭제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런데 그 혐오 발언이란 이 시에 있는 단어 “왜놈”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전반에 대해 여러 관련 학계 -특히 여성문학- 전문가들이 함께 심도 있게 연구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으면서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본고는 정답을 확정하기 위한 연구가 아니라, 가능한 여러 대답을 찾고, 그동안 은폐된 여러 존재지평들을 드러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주디스 버틀러의 『혐오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는 혐오 발언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국가적 결정으로 혐오 발언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는 법만능주의는 시민들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그는 혐오 발언에 대해 재맥락화를 통한 저항의 가능성을 강조한다(버틀러 2016, 82~85). 논자도 혐오 등의 언어폭력에 대해 국가의 개입이 최선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그가 제안한 방식은 상당한 기간을 요하고, 따라서 저항이 쉽지 않은 약자들에 대해 상당 기간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논자는 언어폭력에 대해 건전한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들과 전문성을 지닌 지식인들의 비판적 언어활동이 사회적 책무임을 인지하고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하병학 2023, 184~185).

5. 마무리를 대신하며: 흑수사학에 대항하는 백수사학

혐오 발언을 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혐오감을 확대함으로써 일부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공고화하여 결국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확대하거나 자신 목소리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래서 혐오 발언은 결국 집단 간에 불필요하고도 부당한 갈등을 심화시켜 사

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게 된다. 그런데 어떤 혐오 발언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 혐오가 확산되는 이유는 그 발언이 그럴듯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M. 메이에르는 수사학에서 흑수사학과 백수사학을 구별한다. 그에 따르면 흑수사학은 “속임수의 대상들을 현혹하기 위해 책략과 가면들을 만들어내는 악마의 도구”이고, 백수사학은 “언어의 책략, 거짓 사고의 가면을 벗기는 데 쓰이는” 것이다(메이에르 2012, 10).

흑수사학에 대항하는 백수사학을 참 잘 실천한 정치인 중 한 사람은 노회찬 의원이다. 차별에 대한 그의 발언 사례를 살펴보자.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합니까? 만 명만 평등할 뿐입니다. 여기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 전화기 다른 한 손엔 돈다발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강상구 2019, 261).”

고위공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당연시 누리고 있는 전관예우에 대한 비판이다. 판검사의 전관예우는 판결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수익을 넘어 법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저해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판검사의 전관예우가 공직에 봉사한 법조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논리는 기만적인 차별과 불의의 흑수사학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노회찬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과 칼과 저울로 상징되는 ‘정의의 여신상’에 대비하여 ‘법조인 만 명에게만 평등한 법(만 명에게 특혜를 주는 불평등한 법)’과 전화기와 돈다발로 상징화하는 ‘불의의 여신상’을 대조하여 그 거짓됨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훌륭한 백수사학이다.¹⁶⁾

객관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부당성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흑수사학

16) 노회찬 의원의 말하기 특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하병학 2022, 45~72.

을 완벽하게 이겨내기 힘들다. 흑수사학에 의해 관습화된 감정과 집단적 사고는 그 부당함이 밝혀지더라도 관성적 힘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설득력을 지닌 백수사학으로 흑수사학이 지닌 부당한 설득력의 가면을 벗겨내야 한다.¹⁷⁾ 이를 실천하는 것이 이 시대 지성인들의 책무이다.

하지만 현재 젊은 지성인이자 미래의 주인공인 대학생들에게 이러한 비판적 사고와 백수사학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을 발견하기 쉽지 않다. AI 등 제4차산업 시대를 대비하여 더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많은 물질적 가치를 생산할 기능인 교육에 골몰할 뿐, 지배권력에 비판적으로 대응하고 모두가 평등한 민주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지성인 교육은 점점 간과되고 있다. 젊은 지성들이 우리 미래 사회의 건강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보다 대학의 더 큰 책무는 없다.

17) 스피노자는 정서·감정의 특성에 대해 대단히 주목할 만한 말을 한다. “어떤 열정이나 정서의 힘은 인간의 여타의 작용이나 능력을 능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서는 끈질기게 인간에게 달라붙는다(스피노자 2004, 216[제4부 정리6]).” 즉 감정이 가진 힘, 예컨대 복수심, 혐오감 등이 정의, 합리성과 같은 이성이 가진 힘보다 더 강해 이성으로 제어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장서, 그리고 억제되어야 할 정서보다 더 강한 정서에 의하지 않고는 억제될 수도 없고, 제거될 수도 없다(스피노자 2004, 217[제4부 정리7]).” 부당한, 나쁜 정서는 정당한 이성이 아니라 좋은 정서로 극복될 수 있다는 말이다. 마찬가지로 흑수사학에 대해 논리학, 과학은 한계가 있으므로 백수사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논자의 소견이다.

〈참고문헌〉

- 강상구(2019), 『언제나, 노회찬 어록』, 루아크.
- 국가인권위원회(2020),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 국가인권위원회(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혐오표현 모니터링 보고서」.
- 너스바움, M.(2015),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옮김, 민음사.
- 레이저스, R./레이저스, B.(2013), 『감정과 이성』, 정영목 옮김, 문예출판사.
- 메이에르, M.(2012), 『수사 문제』, 전성기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 버틀러, J.(2016), 『혐오 발언』, 유민석 옮김, 알렙.
- 스미스, A.(2014), 『도덕 감정론』, 박세일/민정국 옮김, 비봉출판사.
- 스피노자, B.(2004), 『에티카』, 강영계 옮김, 서광사.
- 아리스토텔레스(2017), 『수사학』(『수사학/시학』),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
- 아렌트, H.(2006),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김선옥 옮김, 한길사.
- 위스트리치, R.(2004), 『히틀러와 홀로코스트』, 송충기 옮김, 을유문화사.
- 조, 그레이스 M.(2023), 『전쟁 같은 맛』, 주해연 옮김, 글항아리.
- 하병학(2015), 「감정(Pathos)의 수사학 - 진정성과 공감을 중심으로」, 『철학탐구』 제36집, 중앙철학연구소, 63~89.
- 하병학(2019a), 「‘더 리더 - 책을 읽어주는 남자’ -수치심의 여러 얼굴들과 그 작동의 기저」, 『인문과학』 제115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원, 177~204.
- 하병학(2019b), 「인간 이해와 수치심 - 아리스토텔레스와 김상정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제117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원, 215 ~ 242.
- 하병학(2020), 「영화 ‘러덜리스’, 우리가 후회를 한다는 것은...」, 『철학탐구』 제60집, 중앙철학연구소, 165~194.
- 하병학(2022), 「현대 수사학으로 소환하는 노회찬의 말하기」, 『수사학』 제45집, 한국수사학회, 45~72.
- 하병학(2023), 「언어폭력, 언어조작 그리고 거짓말 -아리스토텔레스의 에토스를 중심으로 -」, 『수사학』 제48집, 한국수사학회, 179~207.
- 하병학·강미영(2017), 「수사학적 공간, 구의역 추모 포스트잇에 대한 수사학적 고찰」, 『수사학』 제28집, 한국수사학회, 125~158.

Aristoteles(1995), *Rhetorik*, Übersetzt mit einer Bibliographie, Erläuterungen und einem Nachwort von Franz G. Sieveke, München.
Aristoteles(2002), *Rhetorik*, Übersetzt und Erläutert von Ch. Rapp, Berlin.
Hitler, A.(1930), *Mein Kampf*, München.

<서울경제>, 2022. 10. 12., “김문수 ‘문, 김일성주의자’. 나경원 ‘본인 소신, 바꾸기 어려워’”.

<스포츠경향>, 2024. 03. 23., “한국 쇼트트랙 충돌, 외국 선수들은 알았다”.

<부산일보>, 2019. 04. 16., “세월호 유가족에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한국당 막말 파문”.

<중앙일보>, 2024. 03. 24., “윤 대통령 · 한동훈 ‘종북세력 응징’... 이재명 ‘머슴 도둑질’”.

<한겨레>, 2024. 03. 28., “인권위 사무총장 ‘오늘은 무슨 혐오 들을까... 참혹한 현실’”.

Rhetoric or Philosophy of Disgust

Ha, Byung-Hak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is paper studies disgust from a philosophical and rhetorical perspective. Disgust is an emotion. Emotions have not been an important subject of study in traditional philosophy. Disgust was not discussed in Aristotle and Spinoza's theories of emotions. Before exploring disgu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emotion are presented in terms of complexity, subjectivity, socioculturality, value judgment and relationship with the senses, and narrative.

It is not easy to define disgust. After discussing the main issues in Nussbaum's *Hiding from Humanity: Disgust, Shame, and the Law*,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gust are presented in terms of sense, structures of disgust, and differences from hate. Disgust is easily spread through hate speech. A representative incident caused by hate speech is the Holocaust by the Nazis. The Nazis spread disgust against Jews among the general public by representing them as fungi, tumors, and bacteria.

Hate speech is black rhetoric that deceives the public. The appropriate way to respond to this is to reveal its deception through white rhetoric. To educate students into intellectuals who practice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universities must provide white rhetoric courses.

Keyword ● Disgust, Hate Speech, Emotion, Rhetoric, Discrimination.

■ 논문투고일 : 2024. 06. 08. ■ 심사완료일 : 2024. 06. 19. ■ 게재확정일 : 2024. 06. 19.